

예술과 삶 - 예술적인 삶을 위하여

Art and Life - For an Artistic Life

김가은*

오종우(2015), 『예술수업』(서울: 어크로스).

예술을 수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며, 어떤 장르의 작품을 선택하여 강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기 때문이다. 자칫 ‘예술은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예술사조, 예술가와 작품 소개로 이어지는 예술 수업은 학생들에게 작품을 외워야 하는 암기과목으로 여겨지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이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업 계획을 하던 중 예술 수업을 위한 교재로써 본 도서를 읽게 되었다.

『예술수업』의 저자는 연구년을 맞아 잠시 강좌를 접고 강의 내용을 글로 담았다고 한다. 아홉 번의 강좌를 엮은 본 도서는 예술 장르의 기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예술과 현실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책을 내며 ‘예술작품이 주는 울림은 어디서 비롯될까요?’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저자의 답은 예술은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해석해 삶의 전망을 밝히는 인문학적 전위에 있으며, 예술은 인문학적 사유의 출발점에 놓는다고 하였다.¹⁾ 저자는 1부: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가?, 3부: 삶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라는 물음의 답을 『예술수업』을 통해 말하고자 하였다. 나는 저자가 바라 본 예술작품을 통해 예술의 창의성, 실용성, 내면성, 진정성의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예술의 창의성

첫째, ‘예술가는 어떻게 영감을 얻는가?’ 라는 물음과 함께 그 답을 창의성에서 찾고자 한다.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으로도 창의성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창의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왜 신념처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창의성은 주요 연구자인 조이 폴 길포드(Joy Paul Guilford, 1897~1987)와 엘리스 폴 토란스(Ellis Paul Torrance, 1915~2003)에 의해 ‘새로운 것을 낳는 힘’,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 다른 관점,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²⁾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본 저자는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기존에

*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gaeun422@gmail.com

1) 오종우(2015), 『예술수업』(서울: 어크로스).

없던 것을 창조하는 능력, 단순히 새로운 시각만을 강조하는 것을 몹시 위험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만의 세계에 유배될 위험이 있으며, 자기 욕망의 발현에만 치중하는 탐욕을 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진짜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전문성’, 두 번째는 ‘애착’이다. 축적된 능력을 발휘하여 전문적인 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애착을 가지고 발전시킬 때 기존의 것을 넘어선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하였다. 이는 영감은 문득 떠오르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기에 ‘멋진 영감’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³⁾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예술의 실용성

둘째,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물음은 실질 세계와 여분 세계의 영역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면서 시작된다고 한다. 실질 세계는 실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 물질적인 것들이며, 힘든 실질 세계를 오락이나 여행을 통해 충전하는 것이 여분 세계가 되는 것이다. 여분 세계는 실제 세계 옆에 붙거나 안에 위치해서 수동적인 휴식과 오락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세계이다. 예술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므로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여분 세계에서 가장 핵심은 ‘예술’이다. 예술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소멸한 적이 없는 생명력이 강하고 실용적인 것이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Mikhailovich Dostoevsky, 1821~1881)의 『백치』에서는 독창성의 결핍은 실제적이고, 실리적이며, 실용적인 사람의 첫 번째 자질이자 훌륭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실용적이 못한 이유는 경직되어 있어서 창의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문제해결에 대처하는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실제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분 세계의 핵심인 예술로써 세상을 제대로 보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순간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현 시점에서 문제해결력을 위해 창의성을 예술로써 확장시켜야 한다는 예술의 실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술의 내면성

셋째, ‘보이는 것 너머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연극, 음악, 회화, 영화를 넘나들며 예술작품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치를 찾게 된다. 『예술수업』 2부에서는 비극이 가지고 있는 비례와 척도, 음악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꿈, 그림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선, 영화의 원초적 언어와 관계의 네 개의 수업으로 엮고 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Andrei Arsenevich Tarkovsky, 1932~1986)의 『봉인된 시간』에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고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 이는 어떤 활동은 본래의 속성에서 나오며 때로는 본래의 성질을 규정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실천은 예술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 예술작품의 의미는 그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작품이 사회에서 맺어지는 관계속에서 측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예술의 본질을 보는 것은 독자 혹은 관객의 몫이다. 영화감독 세르게이 예이젠시테인(Sergey Mikhailovich Eisenstein,

2) E. P. Torrance(1988), The nature of creativity as manifest in its testing,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3-75.

3) 김재은(2007), 『창의성과 무용교육』(서울: 한학문화).

1898~1948)은 관객들이 영화 장면의 의미와 상징을 너무 유추하고 따지면 조각이나 속임수 같아서 설득력과 매력을 잃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반면 작품의 내면성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끌어내어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느끼는 상이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관객들은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택한 작품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 꿈과 현실, 사랑의 의미, 관계의 내면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예술작품을 통해 창조적 영감을 보는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하며, 보이는 것 너머를 보려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을 창조해야 한다.

예술의 진정성

넷째, ‘삶을 창조한다는 것’은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실재와 가상의 비구별성 속에서 예술의 진정성을 만나는 것이다. 현대예술이 난해하고 기이해진 이유는 현대에 올수록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사실들을 더욱 비틀기 때문에 가상과 실재가 구분되지 않고 더욱 더 난해하고 기이해졌다. 저자는 마지막 아홉 번째 수업에서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의 그림 『간이휴게소』와 『아침 해』를 통해서 현대인의 낯선 ‘내 모습’과 마주하게 하였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술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행이 필요하며, 여행은 살던 곳의 진부한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생동감을 되살리게 된다며 여행과 예술의 공통점을 언급하였다. 프랑스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 1844~1924)도 여행이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새롭게 보는 눈이 결국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다.

저자는 또 다른 도서 『예술적 상상력』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물음에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초지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사유는 인간에게만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하였다. 사유는 어떤 고민에서 시작해 다른 것들로 확산해가며 전혀 무관한 것들을 연결해서 사유의 폭을 넓히게 된다. 이때 예술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여 사유와 맞닿는다고 한다⁴⁾. 계속되는 저자의 강의에서와 같이 자신 스스로 새로움을 보는 관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의 진정성과 내면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열어주는 창조적 영감이 예술과 현실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있을 때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예술작품을 좋아하면 예술가의 생애와 사조, 사상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술수업』에서는 피상적인 개념보다 예술가들의 감각적 작품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였는지, 인간의 내면과 삶의 갈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책은 예술 강의를 위한 교재로써 예술 전공자들은 구슬을 꿰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비전공자들은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을 본다는 것은 예술가의 삶을 경험해보는 것과 같다. 나는 『예술수업』을 읽고서 예술과 삶, 예술적인 삶을 위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동안 현실에 치이고 일상에 매몰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안의 예술적 상상력을 복원하는 먼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든다.

4) 오종우(2019), 『예술적 상상력』(서울: 어크로스).

■ 참고문헌

김재은(2007). 『창의성과 무용교육』. 서울: 한학문화.

오종우(2015). 『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

오종우(2019). 『예술적 상상력』. 서울: 어크로스.

Torrance, E. P.(1988). The nature of creativity as manifest in its testing.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